



기술표준원 NEWS

■ 유관기관과 합동워크숍 개최



기술표준원은 『KATS 2012plan』의 효율적 실적을 위해 유관기관, NGO 등 각계 각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08.7.18~19 이틀간 지식경제부 연수원(전안)에서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기술표준원 전직원, 유관기관 및 NGO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주제는 "KATS2012plan을 통해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거듭난다"였다.

한편, 최종용 LG산전 부사장의 "기표원의 향후 역할", 최분기 ETRI 원장의 "기술표준" 및 최홍진 중소기업 원장의 "바람직한 기술표준원상"에 관한 특강도 있었다.

그리고 기술표준정책과에서 "KATS2012plan"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학계, NGO, 정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있었다. 동 토론의 주제는 첫째, 표준에 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배,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 소비자, 인증기관, 정부의 역할. 셋째,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의 기술표준원의 역할이었으며, 그밖에 KATS 2012 plan의 유기적 추진을 위한 빈관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 건물 클리닝 서비스 국가표준 적용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고압화, 대형화에 따라 매년 1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으나 3D 업종이란 사회적 인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클리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물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 2종의 KS를 제정했다.

- * 클리닝 서비스란 클리닝 사업자가 건물의 위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활동
- * 건물 클리닝 시장규모 : 사업체수(7,400여개), 2조원('07말 기준 보건복지기조부)

제정된 규격은 연면적 10,000㎡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 과정과 시설·장비, 인력 등 서비스 요구조건으로 구성된다. 건물 클리닝 서비스 프

로세스 표준(KS S 1012-1)에서는 계획수립, 서비스 수행, 확인 및 점검,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 조사까지의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했다.

- * 건물을 18개의 검사단위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세부 품질기준을 제시.
- * 품질수준은 양호(평점 2), 미흡(평점 1), 결함(평점 0)으로 평가.
- * 품질평가결과 품질수준이 75%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

건물 클리닝 서비스 기반구조 표준(KS S 1012-2)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품질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 건물 관리자 및 품질평가자는 공인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그 동안, 건물 클리닝 서비스는 3D 업종이란 인식과 영세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시장은 난가경쟁과 주로 퇴직고령자, 부녀자에 의존하는 종사자의 미전문성으로 인해 고객의 불만을 초래했으나, 이번 표준 제정으로 체계적인 품질평가 및 품질기준의 정착과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건물 클리닝 서비스의 진분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건물 클리닝 아웃소싱 기업간의 차별화를 통하여 국내 건물 클리닝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9년부터 건물 클리닝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27차 한·일 정례표준회의



한국과 일본간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등 표준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7차 한·일 정례표준회의가 '08.7.17(목) 동경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허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법정강제 인증제도에 사용될 각종 인증마크 단일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측은 Hirota 경제산업성 심의관을 비롯하여 7명이 참석하여 표준화인재 육성방안 및 탄소배출량 표준화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ISO/IEC 정책위원회 임원 선거에 있어 양국의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ISO/TMB(기술관리이사회) 위원 신규 진출, IEC/CB(이사회) 및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 ISO/TMB(기술관리이사회) : ISO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3년, 연임가능 / 미국 신규진출 추진)
- * IEC/CB(이사회) : 일반적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주낙영 반도체협회 상임고문)
- * IEC/SMB(표준화관리이사회) :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박세광 경북대 교수)

일본은 IEC/SMB 의장 신규 진출 및 위원 재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측 대표단은 일본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도 방문하여 장애인·노약자 배려,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표준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령화·복지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제품안전학회 발기인 대회

제품안전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08.7.15일 서초동 음식점에서 기업, 학계, 연구계, 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정관심의, 회장선출 등 인원구성을 마쳤다.

이날 2년 임기의 초대 회장으로는 중앙대 이종영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제품안전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되고, 기업에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초대 회장이 된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학자, 기업가, 관련 단체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제품에 의한 보다 풍요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은 만큼, 이번 학회설립으로 좋은 안전 정책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며, 학회가 추진하는 정책개발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제품안전학회는 다음달 하순경에 법인등록을 마치고, 9월 초순경 창립학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동향 세미나

기술표준원은 21세기 국제무역의 핵심과제이며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표준화 동향과 국내 대응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7월 14일(월)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산업제품 중의 유해물질규제 최근 동향과 관련 기업체들의 RoHS 대응 시험방법, 글로벌 전기·전자 기업들이 요구하는 할트젠 시험분석의 국제적 표준기술개발 동향, 또한 유해물질로 작용하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PFOS의 시험분석 방법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하였다.

- 유해물질규제 최근 동향은 중국, 일본, EU, 미국 등의 최근 규제동향과 새로운 규제지침 및 대응방안.
- RoHS 대응 시험방법은 IEC/TC111, WG3의 CDV에 포함된 분석방법과 국내 시험기관들의 분석동향.
- Halogen 시험분석 분야는 국내 20여개 시험분석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분석 방법과 최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소 IC 방법에 대한 분석 시스템의 정보.
- PFOS 시험분석 최근동향 분야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이 준비한 시험기관들의 적합성평가 결과와 국내 시험기관들의 시험분석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최상의 대응방법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대체기술 개발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선형기술인 유해물질 분석방법의 표준화가 확립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업이나 시험기관들에의 공동 표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개최되어 관련기업, 연구기관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술표준원은 2003년부터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제품의 유해물질 분석기술 및 저감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시험분석방법의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고난도 기술인 브롬계 연연제 분석방법, 시료채취방법, 친환경실계기준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도 활발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표준도입국에서 표준개발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시험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생체인식기술 국제표준화 총회

최근 전자여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체인식기술분야 국제표준화 논의가 부산에서 본격화되었다.

※ 생체인식기술 국제표준화 현황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서명기술 등이 있음.

기술표준원은 08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18개국 120여명의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생체인식(JTC1/SC37)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IT정보시스템 등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생체정보 데이터의 저장 포맷 및 적합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중점 추진되었다.

생체정보 데이터 포맷분야는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신체적 특성을 데이터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세계 각국 시스템간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으로서, 그동안 진행된 생체정보 관련 국제표준에 대하여 최근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아울러, 생체인식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위한 표준도 향후 관련제품의 성능평가에 위한 시험 및 인증시스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표준화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체인식분야 기술위원회(ITC1/SC37)은 '02년부터 현재까지 총 27종의 국제 표준을 제정해왔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생체인식 API 적합성 테스트' 및 '정맥인식기술' 등 3종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현재는 'DNA인식' 및 '적합성 평가기술' 등 16개 기술분야의 프로젝트에 리더로 참여하고 있는 등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프로젝트 에디터 :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로 각국의 의견을 수렴·정리하고 최종 국제표준안을 작성하는 핵심역할 수행.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생체인식 데이터 샘플 평가'에 관한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미래성장산업에 기반이 되는 생체인식 표준기술과 IC카드의 연계산업에 대한 국가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 2008.8



유관기관과 합동 워크숍 개최